



#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재단법인 청관장학회·청석장학회

제 205 호

2020년 10월 7일

발행인 : 문 용 린

편집인 : 고 영 현

Homepage :  
www.snueaa.or.kr

E-mail :  
snueaa@hanmail.net

(우)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충정로 3가, 피어리스 아파트) 전화 : (02)720-8116, 8120 / 010-9636-8116 FAX : (02)720-8117

## 동창회 동정



〈동창회, 대학, 경인양행 모임 14P〉



〈41대 동창회 회장단 출범식 및 워크샵 5P〉



〈정도교육클럽 가족회원 1호 김광태님 14P〉



〈정도교육클럽 가족회원 2호 최승언님 14P〉

# 어수선함 속에서 정도교육을 생각한다.

문용린 (교육 67)  
동창회장, 전교육부 장관

## 어수선한 세상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하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이라는 어구가 유행어처럼 널리 회자되고 있다. 가까운 지난 세월에 겪은 적이 없는 일과 사건들이 비일비재 자꾸 일어나는 때문인 듯하다. 지난 70여 년 동안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붙박여 놓은 헌법아래 익숙해져 살아 왔는데, 이 자유를 거두어 내려는 정치권의 흐름에서 삶의 지각변동을 감지하는 어수선함에,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쓰나미가 겹쳐 6.25 남침전쟁이라 최악의 어수선함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

이런 어수선함이 무섭고 절망적인 것은 사태를 호전시킬 효과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호랑이 등에 업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식의 막연한 충고와 덕담만 가지고는 무척 부족하다. 혜성처럼, 흑기사처럼, 초인(超人)처럼 누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이런 어수선함을 일거에 해결 줄 수는 없는 것일까?

과거에 우리는 이에 버금가는 혼란과 어수선함을 겪었다. 예를 들자면 가깝게는 일제찬탈시기(1910년)와 더 멀리는 임진왜란 때(1592년)다. 이때의 재난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대응 대책이 별로 없었다. 오늘의 ‘별다른 도리가 없는(helpless)’ 상황인식과 너무도 유사하다.

## 자유와 창의

그러나 과연 대책이 없을까? ‘대책을 찾는 대책’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하향지향 정책(top-down)은 그 획일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 국민 각자가, 각 가정, 각 사업체가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획일적 지침으로 관리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향지향 정책(bottom-up)이 중요해진다. 각 개인이 각 사업체가 창의적으로 위기극복 방안을 구안해 내도록 격려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향지향 정책에서는 개인은

국가지침만 따르면 된다는 명령과 복종의 관행이 강조 되지만, 상향지향 정책에서는 자유로운 창의적 발상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 중요해져서 위기극복의 주체가 각 개인, 가정, 사업체가 된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발상 속에서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을 비롯한 수많은 외침의 위기를 견뎌 낸 것도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이 아니라, 백성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용기의 결집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일제침략기 동안의 저항과 항거도 어떤 지휘부의 지침과 명령 때문이 아니라, 개인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 행동의 분출로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역사상의 많은 위기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들에 의해서 치유되고 극복 되어 왔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들이 역사의 위기를 타개할 깃발을 든다. 루소가 사회계약설로 국가개념의 프레임을 바꿨고, 루터가 중세 종교관의 두꺼운 껍질을 벗겼고, 피카소가 서양회화의 틀을 바꾸었으며, 안중근이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아시아의 위기를 막으려 했고, 마사 그래함이 발레 중심의 무용의 전통적 굴레를 파괴해 버렸다. 그런 개인들로 인해서 역사는 위기를 이겨냈다. 역사의 큰 진전이나 국가나 사회의 진보에서나 위기 탈출에서나 그 생산적 첫걸음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의 등장과 역할로 시작 되곤 했다.

### 근대교육의 정신

그런 점에서 일제강점기에 ‘별다른 도리’가 보이지 않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에 선각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주목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일이었다. 자유와 창의로 무장된 인재양성이 결국 민족에게 닥친 일제강점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태를 극복할 최고의 방책이라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사재를 털어 지방 곳곳에서 사학을 세우기 시작했다. 교육이 곧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35년의 일제강점기 중에 계속된 사학(私學)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에 대한 항거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었고, 한민족의 역량이 축적 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근대교육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그에 대한 항거가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항거정신 덕분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인재를 기른다’는 교육정신이 지금까지도 한국교육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암묵적 교육철학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한 교육정신이 키워낸 인재들 덕분에 지난 70년간 근대화 산업화라는 힘든 과정을 우리는 성취해 낼 수 있었다.

이런 교육정신과 관행에는 공(功)과 실(失)도 물론 있다. 그러나 과실을 탓으로 공을 무력화 시켜서는 안된다. 긍정적 측면은 계속 확대 발전 시켜나가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 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자유경쟁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기본틀을 와해 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서까래의 부실을 기화(奇貨)로 든든한 들보와 기둥을 허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럴 때 정도(正道)는 부실한 서까래를 골라 바꾸면서 들보와 기둥을 보강해 나가는 것일 게다.

### 정도교육의 본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도교육(正道教育)은 4만여 사대동창들의 교육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몸을 담았고 또 몸을 담고 있는 한국교육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원동력의 한 축(軸)이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교육이라는 축은 지난 70여년 간 계속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홍익인간이라는 유구한 민족의 이상 실현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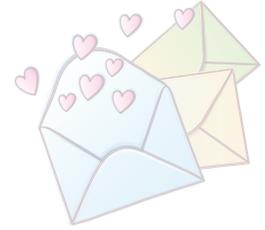
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겹쳐져있다. 4만여 사대동창들은 교육을 천직으로 알고 여기에 삶을 바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육의 전문가다. 우리의 정도교육은 이 전문성에서 출발한다. 교육이 정도를 견제하고 지원하는 일과 정도교육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요소를 약화하고 축소시키는 일에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어수선 함 속에서도 자유와 창의를 겸비한 인재 키우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임진왜란의 지독한 어수선함 속을 견디어 내면서 선비 신흙(1566~1628)은 이렇게 희망을 담은 시를 읊었다. 그도 오동나무(桐), 매화(梅), 달(月) 그리고 버드나무(柳)의 비유를 통해 미래의 기대되는 인재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400여년 전의 지독한 어수선함 속에서도 그는 정도교육(?)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桐千年老 恒藏曲(동천년로 항장곡)  
 梅一生寒 不賣香(매일생한 불매향)  
 月到千虧 餘本質(월도천휴 여본질)  
 柳經百別 又新枝(유경백별 우신지)

오동나무는 천년이 되어도  
 항상 곡조를 간직하고 있고,  
 매화는 일생 동안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그  
 본질을 간직하며,  
 버드나무는 100번 꺾여도  
 새로운 가지를 또 다시 키운다’





# 2020년도 제12회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 개최(06.11)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차례 연기하여 오던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를 지난 6월 11일 5시 30분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짜르트홀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가 사회 전반으로 계속 확대되는 시기여서 많은 동문들의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7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1부 청관대상 시상에서는 사도상에 이춘원(체육 57, 전 당곡고 교장) 동문이, 학술상에 이혜성(국어 58,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동문이, 공로상에 김창철(교육 60, (사)천원오천석기념회 사무국장)이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다.

제2부에서는 먼저 동창회의 주요 활동보고가 있었고, 동창회, 정도교육클럽, 동창회관의 2019년 결산(안) 의결과 청관 및 청석장학회의 결산 보고가 있었다. 뒤이어 2020년 주요활동 계획(안)과 동창회, 정도교육클럽, 동창회관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청관 및 청석장학회의 예산 보고도 하였다. 그리고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도교육클럽 5000의 추진현황 보고도 함께 하였다. 올해는 광명선 동창회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신입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기존의 관례대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임고문, 원로대표, 모교대표, 학과동문회장 대표로 하기로 하였다. 전형위원장에 변주선(영어 60,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상임고문, 전형위원은 임향순(수학 60) 상임고문, 이규택(교육 61) 상임고문, 박찬구(국어 56) 원로 동문, 김희백(생물 75) 모교학장, 심중섭(화학 79) 화학과동문회장으로 구성하였다. 전형위원회에서 학계, 관계, 교육계에 덕망이 있는 교육학과 67학번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동창회를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아 추천하였으며 참석 동문들의 찬성으로 제41대 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감사에는 신정숙(화학 67, 세종과학고 교장)이 연임하고 장우석(지리 76, 전 불암고 교장)이 신입감사로 선출되었다.

## 사범대학 출신 21대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



심상정 의원



안민석 의원



양기대 의원



정경희 의원

성명	학과·입학	소속	지역구	비고
강민정 의원	역사 80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1선, 국회 교육위원회
심상정 의원	역사 78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4선, 국토교통위원회
안민석 의원	체육 82	더불어 민주당	경기 오산시	5선, 외교통일위원회
양기대 의원	지리 81	더불어 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1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정경희 의원	지리 80졸	국민의 힘	비례대표	비례대표, 1선, 교육위원회

# 41대 동창회 출범, 워크숍 개최 등 활동 상황

지난 6월 11일 41대 동창회장에 문용린(교육 67) 동문이 선출된 후 임원진을 구성하여 7월 14일 여주 능원마을 농원에서 회장단임명장 수여와 40대, 41대 회장단, 정도교육추진위원 등 18명이 참여하여 “동창회와 정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회보 1면) 이날 비용은 참석자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여 동창회의 지출없이 해결하였다.

조영달(사회 79, 모교 교수,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진흥원장) 대외협력부 부회장이 “코로나19 시대와 희망교육-학교교육 뉴노멀; 인격과 진로의 주도적 탐색공간-”을 발표하고 신병찬(수학 77, 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동문이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 접근을 보고 동창회, 모교, 학과동문회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 활동 전략

- ▶ 교육현장에서 정도교육을 실천하는 동문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 ▶ 정도교육을 실천할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고교생이 모교에 진학하여 재학중 오로지 선생의 길을 가고자 의도하는 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핵심예비교사를 지원한다.
- ▶ 발굴한 정도교육 실천교사를 모델로 하는 소설, 드라마, 영화, 칼럼 인물 소개 등을 통한 대국민 교육 이미지 제고를 통해 사회·학부모
- ▶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모색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정상화한다.

### ■ 기금관리 전략

- ▶ 지속적 홍보를 통해 기금 동참을 유도하는 on-line, off-line 을 구축한다.
- ▶ 동문가족회원, 모교교수, 사회 각층 인사들을 회원으로 확대한다.
- ▶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소위원회를 둔다.

### ■ 조직의 확대

- ▶ 정도교육 추진위원회 위원을 확대한다.
- ▶ 정도교육 실천 동문 발굴을 추진할 소위원회를 둔다. (모교, 학과동문회 동참)
- ▶ 모교에 정도교육 예비교사 관리를 위한 기구를 둔다.

- ▶ 대언론 홍보를 위한 멀티미디어팀을 구성하되, 동문중 신문, 방송, 작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동문으로 구성한다.
- ▶ 41대 동창회는 위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되 우선 기금확보에 주력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 ■ 정도교육클럽 5000 경과

매월 5,000원(기본)을 동창회에 자동이체하는 동문을 5,000명 확보하자는 정도교육클럽 5000은 2019년 6월 출범하여 그동안 매달 5,000원 1년(12개월, 60,000원)을 1구좌로 하여 5,000구좌를 목표로 변경한 후 2020년 8월 31일 현재 1,320구좌에 해당하는 기금이 적립되었다. 이에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 ■ 41대 동창회 본부임원 명단

구 분	성 명 (학과입학)	직장 직위
회 장	문용린(교육 67)	(전) 교육부 장관, (전) 서울시교육감
감 사	신정숙(화학 67)	(전) 세종과학고 교장
	장우석(지리 76)	(전) 불암고 교장
상임부회장	이영만(화학 66)	(전) EBS 감사, (전) 경기고 교장
총무부	부회장 이병호(영어 7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 사 김남형(지리 80)	신도중 교장
창조 기획부	부회장 신병찬(수학 77)	(전) 서울동부교육청 교육장
조직부	이 사 신원재(국어 74)	(전) 동작고 교장
	부회장 김득호(화학 77)	(전) 창덕여고 교장
사업부	이 사 김봉래(화학 85)	신현고 교감
	부회장 김영애(생물 64)	(전) 대치중 교장
문화 전략부	이 사 이유희(가정 64)	(전) 금란여고 교사
	부회장 김범기(물리 66)	(전) 한국교원대 대학원장
대외 협력부	이 사 조희연(물리 71)	(사)한국모형항공과학협회
	부회장 조영달(사회 79)	서울대교수, (전) 사대학장
홍보부	이 사 최병갑(영어 80)	(전) 잠실고 교장
	부회장 유자효(불어 68)	전 SBS 라디오본부장, 시인
출판부	이 사 이창득(국어 71)	(전) 출판사 다다 대표
	부회장 고영현(생물 71)	(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여성부	이 사 정정옥(지학 74)	(전)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부회장 노희방(지리 73)	(전) 신도중 교장
행사 지원부	이 사 전영숙(국어 74)	(전) 상봉중 교장
	부회장 채현구(체육 78)	(전) 노원고 교감
이 사 이동기(체육 87)	서울대 강사	

## 동창회 조직 및 임원명단

아래 조직은 동문님들의 동창회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정보 중심으로 2020년 9월 15일 현재 잠정적으로 추대한 인사들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동문님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갱신하여 앞으로 자문위원, 이사님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동문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 직	성 명(입학년도)	
명예고문	정범모(교육45)	
수석고문	강신주(사회51) 장충식(역사51) 김동길(화학57) 이혜성(국어58) 최용준(수학61)	
상임고문	이상주(교육56) 변주선(영어60) 임향순(수학60) 이규택(교육61) 곽병선(교육66)	
고 문 (전화장단 및 공헌인사)	이찬교(교육55) 신동일(체육54) 김신일(교육59) 허현호(수학67)	
협동고문 (전·현 사대학장)	이돈희(교육56, 제20대) 이원순(역사45, 제22대) 박용현(교육53, 제24대) 김대형(국어61, 직무대리) 황정규(교육53, 제25대) 황재기(지리55, 제26~27대) 조창섭(독어61, 제28~29대) 윤정일(교육62, 제30대) 조영달(사히79, 제31~32대) 김종욱(지리71, 제33~34대) 전태원(체육72, 제35대) 김찬중(지학73, 제36대) 김희백(생물75, 제37~38대, 현 사대학장)	
자문위원 (국회의원) (총·학장) (기관장) (저명인사)	박종세(교육55) 이연섭(교육59) 권순용(교육61) 류길재(교육61) 박성수(교육61) 이영수(교육61) 임동호(교육61) 장언호(교육61) 이원우(교육63) 이종재(교육64) 이종승(교육65) 김태원(교육67) 이종각(교육68) 오만석(교육69) 정진곤(교육69) 허 속(교육69) 심우엽(교육70) 서범석(교육71) 고희일(교육72) 송광용(교육72) 진동섭(교육72) 정석구(교육74) 천세영(교육75) 백순근(교육80) 윤여각(교육81) 김재춘(교육82) 김경수(국어63) 심규선(국어76) 성기선(국어82) 강의정(영어61) 주복남(영어67) 김성태(영어75) 곽창신(영어72) 김학천(독어59) 최하경(독어64) 김영의(사회49) 최현섭(사회67) 전택수(사회71) 김필수(역사57) 원혜영(역사71) 심상정(역사78) 윤건영(윤리83) 박영희(수학54) 김미재(수학56) 강호봉(수학58) 이찬승(수학69) 박경미(수학83) 권재술(물리70) 김옥진(생물58) 정완호(생물58) 이규석(지학66) 최기숙(체육65) 안상수(체육71) 안양욱(체육75) 안민석(체육82) 이상진(화학61) 고영희(가정64)	
운영자문 위원	유찬근(교육60) 김창철(교육60) 이시우(국어71)	
협동 부회장 (학과동문회장· 동아리회장)	임철일(교육82) 민현식(국어73) 김선웅(영어78) 정문용(독어72) 최광락(불어77) 유인식(사회77) 최준채(역사78) 김남형(지리80) 윤건영(윤리81) 강병개(수학74) 송진웅(물리79) 심중섭(화학79) 우제창(생물74) 김찬중(지학76) 신인식(체육73) 장기숙(가정68) 이병석(수학65)	
이사	교육학	김영진(51) 김선영(53) 이성진(53) 김화영(57) 이동호(59) 유덕준(60) 황재호(61) 이순권(62) 노옥섭(66) 박성익(66) 서정화(66) 한성권(66) 황인창(66) 고필곤(68) 강경석(69) 박부권(69) 강남준(70) 김성기(70) 김계현(72) 김두정(72) 나일주(72) 이재신(73) 김성훈(74) 왕한신(74) 이성호(75) 조용환(75) 김광하(76) 김영화(76) 김재웅(76) 박철홍(76) 우용제(76) 박병기(77) 송기창(77) 왕경수(77) 이원휘(77) 차윤경(77) 황규호(77) 서혜경(78) 김창대(79) 김영철(80) 정수현(80) 한승희(80) 김원찬(81) 강경석(82) 문무경(82) 임철일(82) 김동일(83) 배성근(84) 손민호(86) 이수정(90)
	국어	김상준(48) 구인환(50) 박종대(51) 정우상(53) 전성택(54) 박찬구(55) 김현자(57) 박찬도(58) 정귀생(58) 박형준(60) 이상우(61) 김영수(70) 고영신(73) 이종문(76) 이준순(76) 설경수(81) 민병곤(86)
	영어	정주섭(52) 이정희(56) 오경재(60) 박홍일(60) 김종원(61) 이익환(64) 최영자(65) 정정호(68) 이동식(72) 김남훈(73) 이영식(74) 이재희(74) 이회주(74) 안성호(76) 김선웅(78) 진명희(78) 황종배(82) 심창용(91)
	독어	윤용혁(60) 하순봉(60) 공수영(70)
	불어	이기태(59) 강충권(72) 이봉지(75) 최광락(77)
	사회	최영목(49) 성완용(63) 김병무(64) 김경희(74) 백종면(75) 주영섭(76) 차혁성(79) 김관복(81) 손영실(98)

조 직	성 명(입학년도)
이사	역사 오성종(58) 김동운(64) 황종복(66) 김홍섭(73) 김병혁(76) 민병관(79)
	지리 국해웅(63) 최운식(63) 주경식(68) 박재동(70) 최안기(70) 임창선(72) 기근도(77) 김온호(79) 이선경(83) 송미숙(87) 이훈정(87)
	윤리 윤영돈(90)
	수학 박영삼(57) 이성해(57) 이종락(58) 윤웅섭(61) 이경배(61) 박규홍(69) 지은숙(69) 임성근(70) 김성재(71) 황선욱(72) 윤호영(77) 오은경(82)
	물리 이웅현(53) 김홍우(54) 윤재봉(56) 조길준(56) 이노연(58) 이승우(61) 정근화(63) 강위생(68) 최돈형(68) 장재열(71) 박문수(74) 전동렬(75) 김선주(76) 박완규(80)
	화학 장병덕(59) 최병호(59) 김기광(64) 남창열(65) 최상규(65) 신일윤(66) 이영애(67) 오두환(69) 허성일(71) 홍지준(74) 임규형(79)
	생물 김재호(53) 윤백중(55) 최병주(56) 김충언(58) 이정옥(58) 구성희(59) 이철재(60) 조청재(61) 최낙준(61) 엄영주(66) 방재욱(68) 김재영(70) 김혜경(70) 김원선(72) 김영수(73) 오건주(76) 임용우(77)
	지구과학 한진희(59) 백정일(60) 조혜경(60) 양교석(61) 권치순(68) 오종실(68) 윤석원(68) 김경옥(75) 박병훈(75) 최승욱(82)
	체육 임번장(60) 최귀남(66) 송진숙(70) 성기훈(71) 최성식(73) 유서영(74) 박창호(75) 신종현(81) 조용훈(82)
	가정 임공희(64) 박영석(68) 이혜숙(68) 정창용(68)

축구선수, 래퍼, 선생님, 요리사...  
배움을 통해 아이들은 꿈을 꿈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고 싶은 마음을  
잠시 미뤄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동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똑같이 공부하고  
맘껏 꿈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천재교육 학습봉사단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같이 공부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밑바탕이 되길 바라며  
천재교육은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 꿈을 위한 동행

**천재교육**



# 학교, 그리고 ‘또 다른 학교’

박인기(국어 68)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1968년 봄 내가 입학한 용두동 사대 캠퍼스에는 1,2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다. 캠퍼스는 좁아 보였지만, 학생 활동은 비교적 자유롭고 역동적이었다. 나는 몇몇 동아리의 문전을 기웃거리다가, 내가 보람을 찾을 만한 동아리로 사대방송국을 선택했다. 사범대학 방송국임을 강조하여 영문 약칭을 ‘EBS(Education Broadcasting Station)’로 붙여 놓고 있었다. 당시 사대방송국은 서울대학교에서 유일한 학생 방송국이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서울대 방송국’으로 불렸다. 나는 방송에 특별한 경험이 있지는 않았지만, 해 보고 싶었다. 대학의 일반 동아리와 달리, 방송국과 신문사는 시험을 쳐서 뽑는다. 지원서를 내고 시험을 쳤다. 상식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



한 데에 갇힌 것이었겠는가.

나는 시험에 떨어졌다. 여름방학 후에 추가 모집이 있었다. 나는 다시 지원했다. 집념이 가상했을까. 방송국장을 맡고 있던 김범기 선배(66 물리교육과/(전)한국교원대 대학원장)는 나를 추가로 합격시켜 주었다. 그렇게

방송국에 들어온 나는 서양 대중음악에 대한 내 결핍을 보충하려고 애를 썼다. 당시 유행하던 팝 뮤직, 라틴 음악, 샹송이나 칸초네, 영화음악 등등에 친숙해지려 했다. 그런 음악들로 학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어 보내고, 대학생 방송작품 경연대회에 출품도 했다. 촌놈의 문화적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이 줄기차게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것이 내 성취동기를 자극했을 것이다.

“빌리본 악단(Billy Vaughn Orchestra)과 벤처스 악단(Ventures Group)의 구성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해 보시오.”

‘빌리본’은 무엇이고 ‘벤처스’는 무엇인가. 낯설었다. ‘구성상의 차이점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차이도 모르겠다. 촌놈이었던 나는 열패감에 빠졌다. 방송국 시험이니까 그런 걸 묻겠지. 방송국 일을 하려면 대학생들이 즐기는 팝 뮤직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런 의도로 출제를 했을 것이다. 나의 깨이지 못한 문화적 결핍을 조롱하는 문제들이 곳곳에 출몰했다.

알아보니 정답은 이러했다. 빌리본 악단은 관악기 중심의 구성이고, 벤처스 악단은 현악기와 타악기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우쭐해졌다. 내 문화적 결핍과 열패감에 대한 반작용이었으리라. 인터넷도 뉴미디어도 없던 시절, 시골 구석에서 내가 호흡해 온 문화는 얼마나 협소

이 경험은 나 개인에게는 특별한 커리큘럼(Extra Curriculum)이 되었다. 대학의 정규 커리큘럼 못지않게 정성으로 몰입하였다. 미8군 영내에 있는 UN군사령부방송국(VUNC)에서 편성한 ‘대학생의 시간’에 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할 때는 서울대 방송의 자존심을 걸고 정말 의욕적으로 했다. DBS(동아방송)나 TBC(동양방송)에서 개최하는 전국 대학생 방송작품 컨테스트에 출품할 때는 거의 한 달씩 매달려 밤을 새우곤 했다.

그 무렵 ‘한문강독(漢文講讀)’을 강의하셨던 이응백 선생님은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있는 당송(唐宋) 문장가들의 시문을 특유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석을 붙여, 물 흐르듯 해석해 주시며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밤을 새운 내게는 포근한 자장가처럼 들려오곤 했다. 그 뒤가 문제이었다. 선생님은 백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고, 지난주에 배운 시문을 외워서 적어내게 하셨다. 선생님의 교수법은 한문은 외우다 보면 문리(文理)가 터진다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학생만 선생님 연구실로 가서 재시험을 쳐야 했다. 나는 동기생 김한영(68 국어교육과, MBC, SBS 드라마 감독)군과 두어 차례 이응백 선생님 연구실로 가서 재시험을 치곤 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하라는 공부는 밀쳐놓고, 무슨 엉뚱한 것에 파묻혀 지내느냐?”

‘하라는 공부’는 학교가 부과한 학교의 과업, 즉 정규 교육과정(Regular Curri.)에 해당할 것이다. 그걸 밀쳐 두고 ‘엉뚱한 것에 파묻힘’은, 특별 교육과정(Extra Curri.)이라 할 수 있을진대, 그것은 가히 나의 ‘또 다른 학교’라 할 만했다. 누구나 자기 생애에서 운명적으로 만나는 자기만의 ‘또 다른 학교’가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자기 결정성 위에 유지된다. 일탈로 흐를 수도 있지만, 이런 일탈에는 위험과 함께 모종의 창의적 긴장도 수반된다.

내가 대학에서 경험한 나의 ‘또 다른 학교’는 그 뒤 내 생애에 일정한 관여를 한다. 사대방송국 시절로부터 10년 뒤, 나는 무슨 생애적 인연인지, 실제로 교육방송(EBS) 프로듀서가 되었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당시 EBS는 한국교육개발원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나는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그 기반 위에서 대학 선생의 길을 걷게 된다. 돌아보건대 내가 사범대학에서 익힌 ‘학교의 커리큘럼’과 내 개인으로서 몰두했던 ‘또 다른 학교의 커리큘럼’이 상호 선순환하며 나의 생애를 이끌어갔던 것 같다.

요즘 트로트가 국민적 호응을 얻는다. 예전에는 초등학교생이 공식 무대에 나와서 트로트를 부르는 것은 금기의 일종이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좋은 노래를 두고, 굳이 성인들의 세속 가치가 지배하는 ‘유행가’를 부르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이 별 저항감 없이 등장한다. 유력 방송사들이 어린이를 트로트 가수로 선발하고 출연시킨다. 대중은 그 방송 콘텐츠를 즐기고 소통한다.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중문화의 보편성(힘)을 실감한다.

트로트를 ‘유행가’라고 했다(지금은 이 말도 사라졌다). ‘유행가’란 중립적 용어 같지만, 트로트에 대한 편

하의 뉘앙스가 없지 않다. 말 그대로, 한때 유행하는 노래라는 뜻이리라. 그러니까 유행 따위와는 상관없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하는 고전 클래식과는 다른 음악이라는 것이다. 또 있다. ‘유행’이란 세상 시류(時流)에 통하는 것일진대, 세상 시류에 따라, 또는 세상 시류를 반영하는 노래가 유행가라는 점이다. 요컨대 고상하지 못하고 통속적이라는 인식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분야 종사자들을 ‘딴따라’라고 낮추어 불렀지 않는가. 물론 클래식 종사자들에게는 쓰지 않는 말이다. 교육도 이런 인식을 주류로 삼았다.

대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미디어 생태의 변화가 불러온 사회 변화(social change)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어떤 평가를 부여하느냐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적 허용이 대중사회의 일반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는 노래와 차별을 두지 않고 트로트를 부르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학교가 트로트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트로트에 대한 나만의 커리큘럼을 꿈꾸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또한 그에게는 제도 학교의 커리큘럼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이다.

세상 가치가 속되고 저렴해졌으니 신성한 교육에 선불리 대중의 문화를 들여놓을 수 없다. 반듯한 교육의 규범으로 학교를 지키자. 그런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규범의 힘으로 사회 문화 생태의 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규범 자체가 해체되는 지형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선제적 관심을 가짐이 온당하다. ‘학교 밖 문식성(literacy) 교육’이나 ‘학교 밖 음악교육’, 그리고 ‘학교 밖 미디어 교육’ 같은 의제들이 개방적 인식을 보여 준다. ‘학교 밖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학교 안 교육’과 어떤 상호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다가섬으로써 우리 교육의 탈근대 노력도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트로트의 부상을 주목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 본다. 하나는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적 구분이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룩한 것’과 ‘통속적인 것’ 그 자체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양자의 구

분이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모든 이분법적 인식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하는 쪽으로 문화적 진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학교’와 ‘또 다른 학교’의 관계도 화해적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트로트의 재도약을 불러온, 트로트라는 장르의 내적 노력을 주목하게 된다. 트로트는 자신의 음악적 본질에 더하여 다른 음악 요소들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효과를 창출하였다. 트로트가 보여주는 융합의 노력은 악곡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트로트를 연출하는 공연 문화의 차원에서도 시대적 진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르를 넘어서려는 노력(Beyond Genre)이 창의적 변화를 부른다. 우리가 고수해 온 교육의 장르들은 어떠한가.

학교는 근대가 낳은 가장 훌륭한 제도적 산물 중의 하나이다. 근대를 근대답게 진화시킨 가장 중요한 기제에 학교가 중심에 있다. 근대가 일구어 놓은 과학·기술과 자본도 학교를 통하여 생성되고 확장 재생산되고 소통되었다. 근대의 학교는 교육에 관한 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 말고는 학교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속절없는 탈근대의 생태를 맞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디지털 기술혁명의 환경 생태에서 학교의 독점적 지위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학교 밖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또 다른 학교’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교육 체제’를 활성화하는 생태를 만든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학교’와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연대한다. 헤아릴 수 없이 다변화된 커리큘럼들이 기존 제도 학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각기 어딘가에서 최적화의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간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학교’는 지금의 제도 ‘학교’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서로 협치와 분화를 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 커리큘럼의 경계를 넘어서, 개인의 교육적 동기를 스스로 성취하려는 특별 커리큘럼은 요즈음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사실, 학교 밖 ‘또 다른 학교’의 전통은 문학과 독서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있었다. 다만 이를 커리큘럼으로 보지 못하고, 무형식의 학교 개념으로 유연하게 치환하여 보는 인식론을 갖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그 운영을 공학적 체제로 세련시키지 못했을 뿐이다. 학교 밖 ‘또 다른 학교’의 예를 어떤 연설문에서 인용해 본다.

“위대한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학교가 됩니다. 그 학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울타리도 없고, 학칙도 없고, 반드시 배우도록 정해진 과목이 있지도 않습니다. 시험이나 성적표도 물론 없습니다. 이처럼 문학은 ‘자유 학교’입니다. 그러나 사람됨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나고 배우게 해 주는 학교입니다.

이 자유로운 학교는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발달하는, 마법과도 같은 학교입니다. 사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학교를 같이 다닌 동문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허균의 ‘홍길동전’ 학교를 같이 다닌 동문일 걸요.

사실 우리는 피천득의 ‘인연’ 학교를 같이 다닌 동문이랍니다.”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61入) 名譽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 ‘변혁의 시대’에서 살다 가신 靑南 鄭元植 선생!

김창철(교육 60)  
(사)천원오천석기념회 사무국장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2020년 4월 12일 일요일 오전, 우리 세대 큰 별이자, 교육계의 큰 스승 학자이셨던 靑南 鄭元植 선생께서는 臥病 月餘만에 향년 92세의 일기로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1928년 8월 5일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 1946년 해주 동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운(靑雲)의 뜻을 품고 남(南)쪽으로 내려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진학하여 졸업하였다. ‘교육은 이 땅에 훌륭한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다.’ ‘교육만이 나라를 새롭게 응비시킬 수 있다.’ 라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택한 것이다.

그 후 미국의 피바디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청남은 1960년부터 서울대학에서 조교수로 임명되어 후학들을 지도하는 한편, 서울대학 가이던스센터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 학생지도의 큰 변화를 일으킨 카운슬링 제도의 도입에 크게 기여하고, 서울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88년 정부의 부름을 받아 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어서는 탁월한 문교 행정력을 발휘한다. 결과만을 열거해 보면

1. 과밀학급의 해결과 그를 위한 교실 부족 현상 해소
2.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에 맞는 책걸상 공급
3.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
4. 학교의 수도시설 완비
5. 과외 폐습의 개선을 위한 교육방송의 교재 개발과 교육방송국의 독립 운영 등

우리나라 교육계의 고질적인 난제들을 재임 2년 만에 말끔히 해소한 것이다.

그 후 1991년 국무총리에 취임한다. 총리에 취임한 청남은 그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고 우여곡절 끝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1991년 12월

13일 9시 본 회담에서 남북 양측 대표가 역사적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로서 지금 남북 간의 교류 협상에 기본 지침이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1992년 1월 20일 남북대표가 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다. 요즈음 한반도의 비핵화가 국제적인 관심과 논의의 초점이 되어 있기에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 본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1개월 안에 남북 핵통제위원회를 구성한다.
6. 이 공동선언을 남과 북이 각기 발효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1992년 1월 20일

이 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측은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의도가 확실했다. 그 취지대로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지금의 핵문제는 미연에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최고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공동선언을 백지화 했다.

총리직을 내려놓은 후 청남은 민간인 신분으로 대한적십자사 총재, 안중근 의사 숭모회 이사장, 천원오천석기념회 회장,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이사장 등 사랑과 봉사직을 맡았으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장, 바이오 엑스포 조직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청남은 교수 재직 시 한국 카운슬러협회 회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장, 도서잡지 주간신문윤리위원장, 방송심의 위원회 위원장 등 학술단체와 사회단체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활동했고 국제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White House Conference on Youth and Child의 한국대표, Hawaii 대학 East-West Center의 Senior Fellow, UNESCO 총회 한국대표, Rio UN 환경회의 한국대표, 미국 RAND연구소 Research Fellow등으로 활약하였다.

청남은 교수, 학자로서 수십 권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여 후학들의 학문연구에 크게 기여했고, 여러 가지 심리검사들을 표준화 하였으며, 90세가 되기까지 매일 십여 장씩 원고를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은 일은 우리 모두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청남은 젊은 시절부터 표정이 근엄하고 무뎠다 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분으로 아는 분들이 많았으나, 연륜이 더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속마음은 부드러워져 소탈하고 자상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표정과 언사만큼은 크게 변치 못하였다. 미식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평소에는 냉면, 칼국수, 설렁탕, 장터국밥, 동네의 조그만 자장면 집을 즐겨 찾았다.

청남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조금은 쓸쓸하였다. 극성스럽게 번져나가는 코로나19 사태는 예정했던 대한적십자사의 '사회장' 주관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가까스로 마련한 아산병원의 장례식장에는 조문절차도 까다롭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 조문객에 대한 식음료 접대도 금지되었다. 서둘러 3일장으로 국립현충원 대전지역 국가유공자 묘역에 모셨다.

다행히 생전에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단짝(?) 이영덕(李榮德) 선생 곁으로 가시었다.

두 분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아마도 이 나라의 안위(安危)와 교육계의 정화(靜化) 발전(發展)을 위해 토론이라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명복을 비웁니다.

2020년 9월

김창철 삼가 적음



〈좌로부터 변주선동문, 장충식동문, 故 정원식동문, 강신주동문, 이규택동문, 필자〉

## 물리교육과 2020년도 송년 모임 안내

1. 일 시: 2019.12.5.(토) 오후 4시(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2. 장 소: 백상갈비(02-877-0308, 낙성대로 81)
3. 참가비: 2만원, 동창회비 1만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취소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 추후 문자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영어교육과 동창회 춘계 온라인 포럼 실시

- 일시: 5월 9일(토) 오후 2:00-3:30
- 장소: 온라인 (ZOOM: <https://zoom.us/j/147341505>)
- 주제: 영어교육 -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함께 하는 고민과 새로운 모색
- 강사: 박우상 동문(79, Dr. David English)

# ‘최태상(崔泰祥) 선생님’, 이 제자가 선생님의 존함을 불러봅니다.

노명완(국어 66)  
전 고려대 교수

최태상 선생님,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벌써 두어 달이 넘었습니다. 처음 부음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담담한 심정으로 고교 시절의 은사님이셨던 선생님을 그려봅니다.



(2) 선생님의 수업은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매 수업에서 선생님은 우리들을 역사의 늪에 빠뜨리기도 하셨고, 또 엄청 당황하게도 하셨습니다. 수업에서 선생님은 우선 우리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끌고 가, 그 시대·상황·인물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것은 마치 역사영화를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개화기 수구파와 개화파 사이의 대립과 갈등, 주변 러시아와 일본의 압력 등에 대한 설명은 참으로 압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사대 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청관대상 사도상’을 받으셨지요. 졸업 후 내내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전념하신 선생님의 ‘교육 사랑’을 인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교육 사랑 중에서 특별히 경복고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기고에도 잠시 계셨었지만, 선생님은 끝내 경복으로 다시 오셨고, 그곳에서 교장까지 하셨으니까요. “경복고가 내 체질에 맞아.”라고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낮 놓고 듣고만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각자 한 마디씩 얘기해 봐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는 비탄의 절규를 하였지요. 조금 전의 재미는 사라지고, 공포와 좌절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결국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 해석도 하고 비판도 하였습니 다. 이때 저는 제 머리의 우둔함을 많이 탓하기도 하였습 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에피소드로 선생님의 ‘경복 사랑’을 회고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그래, 그때 내가 그랬지.” 하고 웃으실 것만 같습니다.

(1) 선생님은 신입생인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앉아 있는 각자의 책상 옆에는, ‘네가 우리를 떨어뜨렸으니, 어디 얼마나 잘 하는지 두고 볼 거야.’라며 주시하는 영혼들이 여섯이나 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 나가, ‘대은함 도화동 이룸난 이곳~’ 하며 교가를 불러보아라. 주변의 높은 건물에서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 속에서 너희 선배들이 우르르 나와 너희를 반겨줄 것이다. 경복은 그런 학교다.” “선배들을 본받고 너희 또한 그런 선배가 되어야 한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저에게 선생님의 이 같은 말씀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후에 저는 어느 역사학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역사공부는 과거로 들어가 그 시대·상황·인물들을 이해하고, 현재로 돌아와 이에 대해 해석과 비판을 하고, 이를 미래 설계에까지 적용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역사 수업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선생님 수업의 의미를 제가 교수가 된 후에야 겨우 이해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슬하를 떠난 지 벌써 60여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때의 모습과 가르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이 제자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며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경복고 제자 노명완 드림



# 故 차경수(車京守)교수님 영전에 바칩니다.

조영달(사회 79)  
모교 교수

삼가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차경수 교수님께서 이 세상과 이별하셨음을 哀悼하며 영전에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1955년 4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시어 59년 3월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시고 69년 12월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교육학석사를 받으셨으며, 72년 8월 시라큐스대학교 교육기초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단국대학교와 서강대학교 교수를 거쳐 197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로 부임하셨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他界하셨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교육학회장, 한국청소년학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2001년 대통령 황조근정훈장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등 한국의 청소년과 사회교육을 연구하시어 주옥같은 저서와 논문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과 제자로서 그리고 후배 교수로서 40여 년의 緣을 맺으면서 제 자신은 학문의 향내와 삶의 깊이를 맛보았습니다.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재직하시는 동안 학문과 삶의 귀감이시자 시대와 교육의 변화를 일깨워주신 더 할 수 없는 愛情의 스승이셨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의당 있어야 할 기댈 언덕이 화폭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듯하여 감정의 배회와 충격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 인하여 뱅크스와 사회교육으로 대화하고 학문은 엄정해야한다는 교사교육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께서 결코 풍족하지 않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삶 속에서도 풍요롭지 않음을 편안하게 여기시고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과교육에 대한 올곧은

소신과 진리에 대한 진정한 恒心으로 학자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밝은 지혜로 이치를 窮究하셨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교육과 사범대학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로움을 생각하셨습니다. 화려한 자라거나 포장없이, 적당한 타협없이, 묵묵히 誠心으로 임하신 선생님의 학문과 삶에 대한 자세는 저희 후학들의 진정한 귀감이셨습니다.

선생님의 교육과 연구와 삶의 공적이 너무나 크기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역사와 함께 저희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동안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동안의 노고와 여정에 깊은 존경과 참담한 이별의 애통함을 포함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떠나신 이 길에서 저희도 더욱 투철하게 사회과의 사범을 양성하고 저희에게 주신 역할과 좌표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선생님의 삶에 풍요와 안식을 주셨던 사모님과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신의 가호가 같이 하길 염원하오며, 삼가 두 손 모아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조영달(曹永達) 올림



## 2021년도 제13회 청관대상 후보자 추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에 본 상을 시상하여 서울사대인의 귀감으로 삼고 동창회의 단합과 활성화를 이루고자 청관대상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 1. 시상종류

- 가. 사도상 :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 학교경영 등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동문
- 나. 학술상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적 연구 실적이 우수한 동문
- 다. 공로상 :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거나,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동문 또는 비동문 개인 및 단체

### 2. 시상 시기 : 2021년 정기총회

### 3. 후보자 추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문은 3인 이상의 연기명으로 후보자를 추천

### 4. 선정 :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함.

### 5. 마감 일자 : 2021년 1월 31일

6. 제출 서류 : 가. 청관대상 후보추천서                      나. 공적조서                      다. 이력서(사진첨부)  
                   라. 기타 공적 입증 자료                      마.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창회 홈페이지를 참고(www.snueaa.or.kr)

7. 제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충정로3가, 피어리스아파트)  
 이메일 : snueaa@hanmail.net

8. 기 타 : 추천서 제출은 우편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회 소정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접수치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송년모임 안내

코로나19가 다시 극성을 부리며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던 송년모임도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기를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동문 선후배님을 모시고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0. 11. 19(목) 17:30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모짜르트홀(시청앞)
- 회 비 : 3만원
- 회비입금계좌 : KEB하나은행 221-910158-88607 문용린 서울대사대동창회
- 신 청 : TEL)02-720-8116/8120, H,P 010-9636-8116

- ▣ 본 일정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안전한 모임을 위해 50명 이내에서 사전예약하신 분만 입장이 가능하며 동창회 신청 후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조금 및 찬조물품 협찬을 풍성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원만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11월 12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도 불편함 없이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2020년 동문들의 따뜻한 이야기

이영만(화학 66)  
동창회 상임부회장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사대 동창회 활동에도 극도로 위축되는 사태를 가져왔다. 첫 번째로 3월 정기총회가 연기되고 연기되다 6월 11일에야 가까스로 개최되어 41대 동창회장이 문용린(교육 67) 동문이 선출되고 새 임원진 출발은 7월 14일에 임명장 수여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작하였다.



있다. 이에 김동길 동문, 정원식(화학 86, 대표) 동문, 임승택(화학 82, 상무) 동문, 문용린 동창회장, 김희백 학장, 홍훈기 화학교육과 학과장, 이영만 상임부회장, 최병갑 대외협력부 이사가 지난 9월 9일 경인양행 중앙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감사의 말씀과 상호의견을 개진하였다. 홍훈기 학과장은 이를 계기로 학과, 대학동창회가 주선하여 지원하는 동문과 지원받는 재학생들의 정기적 모임도 가질 예정이다.(회보 1면)

코로나19여파로 청관장학회 소유 바비엡2차 3개 호실 위탁 사업도 지지부진하여 수입이 50% 줄어들었고 동창회관 임대사업도 마음 놓을 형편이 못되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동문들의 모임을 가질 수 없어 근황을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원식 전 총리, 최태상 30대 회장, 차경수 교수 등 동문들의 타계소식이 들려왔지만 변변한 조문도 하기 힘들었고 2020년 주요 행사 계획은 차질을 가져왔지만 상임이사회와 청관·청석 장학회의 이사회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혜성(국어 58,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총장) 동문은 코로나19로 동창회 활동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동창회 활동을 위해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정도교육클럽 5000에 2백만원을 후원하고 매달 자동이체 회원에도 가입한 바 있다. 앞으로 동창회 정도교육에 상당대학원대학교 교과과정을 연계하여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는 날마다 멀어져갔지만 그러나 따뜻한 동문들의 이야기는 더욱 늘어가서 동창회 운영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 분들의 이야기를 실어 이 나라 교육의 정도를 걸어온 동문들이 다함께 기뻐하며 나라와 질병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동창회에 일조하고자 한다.

변주선(영어 60) 동문은 정도교육클럽 5000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족회원제도의 효시로 부군이신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이 100만원을 후원하였으며 노희방(지리 73) 동문의 부군이신 최승언(서울대 자연과학대 졸, 지구과학교육과 명예교수) 교수께서 200만원을 후원하고 월1만원 2구좌를 자동이체로 가입하였다.(회보 1면) 한편 모교 물리교육과의 조정효 교수, 이정호 교수는 정도교육클럽 회원에 가입하였으며 동문이 아닌 가족회원, 교수회원이 늘어가고 있다.

김동길(화학 57, (주)경인양행 명예회장) 동문은 호준장학재단을 통하여 매학기 3명(1명당 300만원)에게 생활지원 장학금과 2명에게 특지장학금을 지급하여 약 1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김동문은 2019년에도 정도교육클럽 5000에 1천만원, 매달 50만원 자동이체, 500만원을 동창회에 지원한 바

김우석(화학 57) 동문은 삼지화성(주) 회장으로 정도교육클럽 5000에 500만원을 후원하였다. 홍신일(교육 63), 조숙상(화학 67) 부부동문은 청관장학회에 1천만원을 기부하여 2020년 1학기에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용현(물리 53, 전 군산대 교수) 동문께서도 1천만원을 청관장학회에 기부하여 2021년 1학기에 장학금

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허현호(수학 67) 동문은 2012년부터 본인 연금에서 일부를 매달 저축하여 매년 15백만원씩 9년째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도 15백만원을 장학금으로 기

부하였다. 최규훈(체육 94) 동문은 학원 강사로 모은 돈을 모교 체육교육과 발전기금으로 1억을 기부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 31일까지 동창회 찬조, 청관장학회에 기부한 동문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동창회에 찬조하신 동문(2015년~2020년 8월까지)

후원금액	후원자명	후원금액	후원자명
30,000,000	이혜성(국어 58)	12,000,000	강신주(사회 51), 최용준(수학 60)
8,800,000	변주선(영어 60)	6,300,000	박명학(영어 61)
6,000,000	김동길(화학 57), 장총식(역사 51)	3,800,000	김영애(생물 64)
2,200,000	이규택(교육 60)	2,100,000	임향순(수학 60)
1,700,000	곽병선(교육 66)	1,500,000	조영달(사회 79)
1,200,000	박찬구(국어 56)	1,000,000	박찬도(국어 58), 심규선(국어 76)
900,000	윤용섭(수학 60), 이영만(화학 66)	800,000	김영의(사회 49), 박준(국어 60)
700,000	황선용(사회 57), 정근화(물리 63)	600,000	박성수(교육 61), 방재욱(생물 68)
500,000	최병호(화학 51), 이상주(교육 56), 이춘원(체육 57), 오경재(영어 60), 윤용혁(독어 60), 강의정(영어 61), 서한샘(국어 64), 이병석(수학 65), 황종복(역사 66)		
400,000	문화탐방 십사일반, 문화탐방 영어과61 참가자일동		
300,000	최태상(역사 53), 김화영(교육 57), 김조영(지리 60), 박진홍(수학 61), 김경수(국어 63), 엄영주(생물 66), 이병호(영어 70), 조형래(영어 73), 안양욱(체육 75)		
250,000	유길자(교육 61), 이영수(교육 61)		
200,000	김순오(가정 55), 정완호(생물 58), 최기숙(체육 65), 신일윤(화학 66), 이규석(지학 66), 신정숙(화학 67), 김찬중(지학 76), 유전공학특화사업소		
100,000	김상준(국어 48), 김학천(독어 59), 이동호(교육 59), 손영목(생물 60), 이희자(가정 60), 임번장(체육 60), 하순봉(독어 60), 윤태익(영어 61), 윤정일(교육 62), 김성기(교육 70), 전택수(사회 71), 심상정(역사 78), 김선관(체육 87), 가정과 참가자일동		
50,000	김만기(교육 59), 임동호(교육 61)		
30,000	채현구(체육 78)		

### 장학금 기부하신 동문(2015년~2020년 8월까지)

기부금액	후원자명	기부금액	후원자명
622,139,000	천재교육 최용준(수학 60)	90,000,000	허현호(수학 67)
23,875,000	호준장학회 김동길(화학 57)	14,000,000	범은장학재단 장총식(역사 51)
10,000,000	강신주(사회 51), 이용현(물리 53), 홍지준(화학 74)		
5,000,000	조속상(화학 67), 홍신일(교육 63), 황**(역사 66)		
3,000,000	박봉배(역사 49), 천재교육 최용준(수학 60)		
2,500,000	김영애(생물 64)		
1,000,000	이정희(영어 56), 박명학(영어 61)		
200,000	한경수(교육 58)		

**입학년도 표기에 대한 안내** 많은 동문들이 입학년도(학번)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 2009년 11월 1일부터 본회에서 입학년도 위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자료가 졸업년도 위주로 표기되어 있어 간혹 입학년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사오니 휴학 등으로 입학년도가 다를 경우 동창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정정해 드립니다.



## 청관장학회 4차, 5차 이사회 개최

지난 6월 30일과 7월 17일에 청관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이사회에서 허현호 동문(수학67)의 기부금 15백만원에 대해 기본재산 편입제외신청을 승인하여 교육청 승인후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과 2학기 장학금 지급액을 24백만원으로 결정하는 안에 대해 의결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1일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문용린 동창회장의 당연직 이사 승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7월 임기 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재선임을 하였다. 임기 만료되는 김영애 이사, 신정숙 이사, 이영만 이사에 대하여 이영만 이사는 연임하기로 하였고 신임이사로 허숙(교육 69, 전 경인교대 총장) 동문과 신병찬 감사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임기 만료되는 신병찬 감사와 최기숙 감사를 대신할 신임감사로 박규홍(수학 69, 서원대 명예교수) 동문과 노희방(지리 73, 전 신동중 교장)을 선임하였다. 당연직 이사인 곽병선 전 이사장의 사임으로 참석이사가 투표하여 전원 찬성으로 문용린(교육 67) 동창회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 지난 6월 19일 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바비엡2차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세안텍으로부터 코로나 19의 여파로 지난 3월부터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고통 분담하여 상생하자는 취지로 운영 중단 없이 6월분 임대료부터 운영사 위탁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임대료를 50%를 감액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다. 이에 2021년부터 장학금지급 규

모가 대폭 감소될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도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청관장학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후배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뜻있는 동문들의 따뜻한 기부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십시일반 여러 동문들이 기부금 모금에 동참하여 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동참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 8월 25일 이용현(물리 53) 동문께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쓰기를 바란다고 장학금으로 10백만원을 기부하였다. 군산대 교수를 지낸 이 동문은 동창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매년 동창회비도 납부하였으며 “정도교육클럽 5000”에도 일백만원을 후원하였다. 지난 6월 모교의 물리교육과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후배들을 보며, 오래전부터 장학금 기부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발전기금으로 10백만원을 후원하였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청관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허현호(수학 67) 동문께서도 지난 5월 28일 15백만원을 기부하였다. 허동문은 2012년부터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8월 25일 2학기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 ● 2학기 장학금 지급규모(동창회 및 동창관련포함 집계)

(단위 : 원)

구 분	장학생 수	장학금 지급액
청관장학회	9 명	22,559,000
청석장학회	1 명	2,442,000
천재교육 (최용준동문)	20명	51,790,000
호준장학회 (김동길동문)	3 명	9,000,000
총동창회 김동길 특지장학금	2 명	5,950,000
계	35명	91,741,000

〈동문 여러분이 장학회에 기탁하신 기부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재(교육 64, 모교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 4월 16일 학교법인 동량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서훈(교육 75, 국가정보원장)** 동문이 지난 7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재춘(교육 82, 영남대 교수)** 동문이 지난 9월 1일자로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및 교육대학원 원장 보직에 임명되었다.

**김영화(교육 76, 홍익대 교수)** 동문이 9월 1일자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장 보직에 임명되었다. 또한 김영화 동문이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을 교육과학사(2020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에서 출간하였다.



**문상연(교육 93)** 동문이 지난 5월 20일자로 교육부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였다.

**김태연(교육 석사 12)** 동문이 올 여름 미시간주립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8월 17일자로 네브라스카 주립대(링컨)에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교육학과의 서근원(석사 94, 대구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동문이 <학교 혁신의 선구자들>과 <학교 혁신 다르게 보기>를 교육과학사에서 출간하였다.

**임효진 동문(교육 92, 서울교대 교수)과 박주병(교육 91, 강원대 교수)** 동문이 『삶의 목적: 청소년기 최적발달의 핵심요인』(원제: Purpose in Life: A Critical Component of Optimal Youth Development, Kendall Cotton Bronk 저)를 공역하여 출간하였다.

**영어교육과의 김경애(74, 한경대 교수)** 동문, **김영숙(74, 대구교대 교수)** 동문, **이영식(74, 한남대 교수)** 동문, **진명희(78, 양강중 교장)** 동문께서 퇴임하였다. **김관호(78, 광주상무중)** 동문은 교장, **박상화(84, 서울국제고)** 동문은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이동식(72, 영화진흥위원회 감사)** 동문은 [온케이해평전]을, **박우상(78)** 동문은 [논리 영어의 정석]을 출간하였다.



**조영달(사회 79, 모교 교수)** 동문이 모교의 4개 부설학교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부설학교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박경미(수학 83, 20대 국회의원)** 동문이 지난 5월 31일 청와대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전동렬(물리 76, 모교 교수)** 동문이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20년 유럽물리올림피아드에서 전동문을 대표단장으로 하는 한국대표단의 대표 학생 5명 전원이 모두 20위 안에 들어 금메달을 획득해 종합 1위를 달성 하였다.



**지영래(물리 '00)** 동문이 2020년 2월 20일자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하상우(물리 '00)** 동문이 2020년 9월 1일자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최규훈(체육 94, 학원강사)** 동문이 체육교육과에 1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였다. 체육교사를 준비하는 임용고시생 사이에서 체육과목 스타강사로 꼽히는 최동문은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학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 동창회비 납부안내

동문간의 호혜적 의사소통을 위한 친목도모, 동호회 활동지원, 각과 동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창회는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에는 동문님들의 애정과 응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창회는 동창회관 대출금 상환과 정дю교육클럽이 정착되면 회비 없이 모임을 갖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동문님들께서 특히 임원님들께서 (회장단, 고문, 자문위원, 이사님들) 그때까지 동문님들께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 서울사대출신의 존재감 드높이는 동창회의 동문님들의 모습을 보도록 해 주세요!

■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문용린)

※ 문의처 : 동창회 Tel. (02)720-8116 / 8120  
H.P. 010-9636-8116

- ◆ 회 장 : 2,000,000원
- ◆ 고 문 : 300,000원
- ◆ 자문위원 : 200,000원
- ◆ 부회장·감사 : 300,000원
- ◆ 이 사 : 50,000원
- ◆ 일 반 : 30,000원
- ◆ 평생회비(1회)  
이 사 : 400,000원  
일 반 : 200,000원

### 회비 납부자 명단 (2020.06.01.~08.31)

#### 평생회비(일반) 20만원

김두응(국어 49)	임공희(가정 64)	정상섭(화학 84)
양동영(체육 60)	이영건(영어 67)	권호신(역사 95)
고병철(국어 61)	송인숙(국어 71)	도광선(역사 95)
윤덕중(불어 64)	성기웅(수학 73)	
윤성수(교육 64)	조혜옥(수학 76)	

#### 고문·임원·이사회비

김충언(생물 58) 5만원	국해웅(지리 63) 5만원
한진희(지학 59) 5만원	최돈형(물리 68) 5만원
유덕준(교육 60) 5만원	고영신(국어 73) 5만원

#### 일반회비 (3만원)

〈가정〉 한익수(57) 오광숙(60)  
 〈교육〉 홍창숙(52) 김만기(59) 김명수(68)  
 〈국어〉 전경옥(58) 예원혜(61)  
 〈독어〉 임상순(60) 박경서(66)  
 〈물리〉 진동섭(59) 최삼우(60)  
 〈불어〉 이휘자(60) 함오연(67)  
 〈생물〉 최계숙(52) 김병국(59)  
 〈역사〉 이봉현(55) 이희환(56)  
 〈영어〉 전래수(52) 정수룡(56) 김준한(61) 구본식(70)  
 〈지리〉 서광원(68)  
 〈체육〉 윤석오(58) 김낙영(82)

#### 41대 회장단 회비

회 장 2백만원 문용린(교육 67)  
 부회장·감사 30만원  
 신정숙(화학 67) 장우석(지리 76) 이영만(화학 66)  
 이병호(영어 70) 신병찬(수학 77) 김득호(화학 77)  
 김영애(생물 64) 김범기(물리 66) 조영달(사회 79)  
 유자호(불어 68) 고영현(생물 71) 노희방(지리 73)  
 본부이사 5만원  
 신원재(국어 74) 김봉래(화학 85) 이유희(가정 64)  
 조희연(물리 71) 정정옥(지학 74) 전영숙(국어 74)  
 최병갑(영어 80)

.....♥ 평생회비 납부자는 동창회 홈페이지 동창회비란에 ♥.....  
 게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모집

동창회보에 게재할 동문들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원고주제 : 자유(시, 수상, 여행기, 동호회 활동기, 주변 잡기등)
- ♥ 원고마감 : 수시
- ♥ 원고매수 : 한글파일 10포인트 A4용지 1장~2장 이내
- ♥ 제출처 : 우 편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50, 1010호 (총정로, 피어리시아파트)

E 메일 : snueaa@hanmail.net

#### 동창회 관련 안내

- 사무실 :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50, 1010호(피어리시아파트)
- 연락처 : ☎ 02-720-8116/8120 fax 02-720-8117  
H.P 010-9636-8116
- 홈페이지 : <http://www.snueaa.or.kr>  
(회원 가입후 동창회의 확인을 받아야 이용 가능)
- 이메일 : snueaa@hanmail.net
- 동창회 밴드 : 네이버밴드 서울사대동창회 알림방  
(비공개밴드로 동창회로 연락주시면 초대후 이용 가능)
- 정дю교육클럽 온라인 가입 : <http://자동이체.kr/ars?userid=snueaa001>  
자동이체 계좌 : 우리은행 1005-903-676866  
예금주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동창회

■ 정도교육클럽 5000 후원하신 동문(2020년 8월 31일 현재)

순번	성명	학과학번	찬조금
1	김동길	화학 57	10,000,000
2	변주선	영어 60	5,000,000
3	곽병선	교육 66	2,000,000
4	김희백	생물 75	2,000,000
5	이혜성	국어 58	2,000,000
6	최승언	지학 명예교수	2,000,000
7	강신주	사회 51	1,000,000

순번	성명	학과학번	찬조금
8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1,000,000
9	심규선	국어 76	1,000,000
10	이규석	지학 66	1,000,000
11	조승제	수학 64	1,000,000
12	조영달	사회 79	1,000,000
13	서동영	영어 60	594,490

순번	성명	학과학번	찬조금
14	김영애	생물 64	500,000
15	신정숙	화학 67	500,000
16	이영만	화학 66	500,000
17	오세정	서울대총장	300,000
18	이병호	영어 70	300,000
계			31,694,490

※ 회비납부자와 후원자명단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 정도교육클럽 5000 가입하신 동문(2020년 8월 31일 현재)

학과	성명	납부	학번	신청금액
교육 (36명)	정범모	월납	교육 45	5,000
	故정원식	일시납	교육 48	120,000
	김인수	월납	교육 53	5,000
	이성진	월납	교육 53	5,000
	성일제	월납	교육 56	5,000
	이돈희	일시납	교육 56	1,000,000
	이상주	월납	교육 56	5,000
	이석주	월납	교육 56	10,000
	김신일	일시납	교육 59	300,000
	김지자	월납	교육 59	5,000
	이찬교	월납	교육 59	100,000
	유천근	월납	교육 60	5,000
	윤용재	월납	교육 60	10,000
	권균	월납	교육 61	5,000
	권순용	월납	교육 61	5,000
	박성수	월납	교육 61	50,000
	황채호	월납	교육 61	10,000
	방재근	월납	교육 62	5,000
	심상학	월납	교육 62	5,000
	윤정일	월납	교육 62	5,000
	연정자	월납	교육 63	5,000
	이원우	월납	조승제	5,000
	이종재	월납	교육 64	10,000
	이종승	월납	교육 65	10,000
	허경철	월납	교육 65	5,000
	곽병선	월납	교육 66	100,000
	노옥섭	월납	교육 66	5,000
	박경숙	월납	교육 66	5,000
	서정화	월납	교육 66	5,000
	문용린	월납	교육 67	10,000
	배호순	월납	교육 67	5,000
	이학주	월납	교육 68	5,000
	허숙	월납	교육 69	10,000
	박철홍	월납	교육 76	10,000
	백순근	월납	교육 80	10,000
	이준철	월납	교육 97	5,000
국어 (27명)	박영자	일시납	국어 46	60,000
	김삼준	월납	국어 49	5,000
	박종대	일시납	국어 51	1,000,000
	정우상	월납	국어 53	5,000
	박찬구	월납	국어 56	5,000
	박희숙	월납	국어 56	5,000
	성철용	월납	국어 56	10,000
	박찬도	월납	국어 58	5,000
	이혜성	월납	국어 58	5,000

학과	성명	납부	학번	신청금액	
독어 (9명)	노재봉	월납	국어 59	5,000	
	심영자	월납	국어 59	10,000	
	최방지	월납	국어 59	5,000	
	김경수	월납	국어 63	10,000	
	김일병	월납	국어 65	5,000	
	김진영	월납	국어 65	5,000	
	홍태식	월납	국어 67	5,000	
	박윤주	월납	국어 68	5,000	
	박인기	월납	국어 68	5,000	
	우한용	월납	국어 68	5,000	
	강성철	월납	국어 71	5,000	
	윤기영	월납	국어 74	5,000	
	전영숙	월납	국어 74	5,000	
	심규선	월납	국어 76	5,000	
	이준순	월납	국어 76	5,000	
	유향란	월납	국어 78	10,000	
	민병근	월납	국어 86	10,000	
	김승현	월납	국어 99	5,000	
	독어 (9명)	김학천	월납	독어 59	5,000
		윤용혁	월납	독어 60	5,000
		최하경	월납	독어 64	10,000
		이상경	월납	독어 65	10,000
		박경서	일시납	독어 66	60,000
		구자숙	월납	독어 68	5,000
		김영지	월납	독어 68	5,000
박범훈		월납	독어 71	5,000	
정창권		월납	독어 88	5,000	
물리 (25명)	이경호	월납	교수	10,000	
	조정호	월납	교수	5,000	
	이용현	일시납	물리 53	1,000,000	
	박승재	월납	물리 55	5,000	
	송재환	일시납	물리 55	50,000	
	조민식	일시납	물리 55	25,000	
	이기종	월납	물리 56	5,000	
	조길준	일시납	물리 56	100,000	
	권영환	월납	물리 59	5,000	
	주정규	월납	물리 61	5,000	
	정근화	월납	물리 63	10,000	
	권재술	월납	물리 66	5,000	
	김범기	월납	물리 66	5,000	
	최영준	월납	물리 66	5,000	
	최도형	월납	물리 68	5,000	
	전우수	월납	물리 69	10,000	
	문영호	월납	물리 70	5,000	
	박학규	월납	물리 75	5,000	

학과	성명	납부	학번	신청금액	
불어 (6명)	전동렬	월납	물리 75	5,000	
	김선주	일시납	물리 76	60,000	
	송진웅	월납	물리 79	5,000	
	조수경	월납	물리 83	5,000	
	허남영	월납	물리 93	5,000	
	채승철	월납	물리 97	5,000	
	사회 (16명)	김효준	월납	물리 98	5,000
		이기태	월납	불어 59	5,000
		송용건	일시납	불어 61	500,000
		김영환	월납	불어 65	5,000
		박인자	일시납	불어 66	1,000,000
		김형기	월납	불어 72	10,000
		김원규	월납	불어 77	5,000
		강신주	일시납	사회 51	120,000
		정복래	일시납	사회 54	300,000
		조도근	일시납	사회 57	300,000
이종권		월납	사회 59	5,000	
박기형		월납	사회 70	5,000	
김경희		월납	사회 74	10,000	
최수현		월납	사회 75	10,000	
조영달		월납	사회 79	5,000	
생물 (28명)		김진환	월납	사회 85	5,000
	김정숙	월납	사회 90	5,000	
	안보홍	월납	사회 97	5,000	
	유우정	월납	사회 97	5,000	
	이지은	월납	사회 97	5,000	
	김재우	월납	사회06	5,000	
	손주성	월납	사회09	5,000	
	송미리	월납	사회11	5,000	
	최계숙	월납	생물 52	5,000	
	송임숙	월납	생물 55	5,000	
	이정태	일시납	생물 55	60,000	
	조용복	월납	생물 55	5,000	
	김옥진	월납	생물 58	5,000	
	이정옥	월납	생물 58	5,000	
	정원호	일시납	생물 58	1,000,000	
	정해문	월납	생물 58	5,000	
	이민자	일시납	생물 59	100,000	
	김익수	월납	생물 60	5,000	
	김영순	월납	생물 62	10,000	
	김영애	월납	생물 64	10,000	
	목창수	월납	생물 66	5,000	
	엄영주	월납	생물 66	5,000	
	이광원	월납	생물 66	5,000	
	방재욱	월납	생물 68	5,000	

■ 정도교육클럽회원가입자 ■

학과	성명	납부	학번	신청금액
수학 (27명)	길기수	월납	생물 70	5,000
	김해경	월납	생물 70	5,000
	정규범	월납	생물 70	5,000
	고영현	월납	생물 71	5,000
	이소통	월납	생물 72	10,000
	김희백	월납	생물 75	5,000
	오건주	일시납	생물 76	500,000
	임용우	월납	생물 77	5,000
	전상학	월납	생물 79	10,000
	신영준	월납	생물 81	5,000
	김소연	월납	생물 85	5,000
	박소연	월납	생물 87	5,000
	김주봉	월납	수학 54	10,000
	박승철	월납	수학 57	5,000
	강호봉	월납	수학 58	5,000
	한상표	일시납	수학 58	100,000
	오순임	월납	수학 60	5,000
	임향순	월납	수학 60	10,000
	김상일	월납	수학 61	5,000
	박진홍	월납	수학 61	10,000
	윤웅섭	월납	수학 61	5,000
	박상호	월납	수학 63	10,000
	조승제	월납	수학 64	10,000
	지은숙	월납	수학 66	5,000
	최종우	월납	수학 68	5,000
	박규홍	월납	수학 69	5,000
	이구범	월납	수학 69	5,000
이명자	월납	수학 70	5,000	
김홍동	월납	수학 72	5,000	
김성호	월납	수학 73	10,000	
최석중	월납	수학 73	5,000	
심현각	월납	수학 74	5,000	
장경운	월납	수학 74	5,000	
강병련	월납	수학 75	5,000	
신병찬	월납	수학 77	5,000	
최수창	월납	수학 78	5,000	
박경미	월납	수학 83	10,000	
전영란	월납	수학 85	5,000	
이경화	월납	수학 86	5,000	
역사 (19명)	장충식	월납	역사 51	5,000
	이찬도	월납	역사 55	5,000
	오성중	일시납	역사 58	60,000
	이양자	월납	역사 59	10,000
	정선영	월납	역사 63	5,000
	조상제	월납	역사 65	5,000
	이효건	월납	역사 66	10,000
	승용기	월납	역사 69	5,000
	김병혁	월납	역사 76	5,000
	최준재	월납	역사 78	5,000
	권경안	월납	역사 82	5,000
	윤신덕	월납	역사 82	5,000
	오대겸	월납	역사 83	5,000
	심원섭	월납	역사 94	10,000
	정경하	월납	역사 94	5,000
	한지형	월납	역사 94	10,000
	권호신	일시납	역사 95	300,000
	도광선	일시납	역사 95	300,000
	정선아	일시납	역사 99	300,000
김순신	월납	영어 51	5,000	
박양수	일시납	영어 55	65,000	

학과	성명	납부	학번	신청금액	
영어 (40명)	정기숙	월납	영어 55	5,000	
	이기방	월납	영어 59	5,000	
	박홍일	일시납	영어 60	200,000	
	변주선	월납	영어 60	10,000	
	강의정	월납	영어 61	5,000	
	김종원	월납	영어 61	5,000	
	김주한	월납	영어 61	5,000	
	이희숙	월납	영어 61	5,000	
	강명순	월납	영어 63	5,000	
	황정옥	월납	영어 63	5,000	
	이익환	일시납	영어 64	60,000	
	민무일	월납	영어 65	30,000	
	최영자	월납	영어 65	5,000	
	박효순	월납	영어 66	5,000	
	전병일	월납	영어 66	10,000	
	차광순	월납	영어 66	5,000	
	김철교	월납	영어 68	10,000	
	오해균	월납	영어 70	5,000	
	이병호	월납	영어 70	5,000	
	장경기	월납	영어 70	5,000	
	김재호	월납	영어 71	5,000	
	김철진	월납	영어 71	5,000	
	김희연	월납	영어 71	5,000	
	양홍룡	월납	영어 71	5,000	
	곽창신	월납	영어 72	10,000	
	이동식	월납	영어 72	10,000	
	김영준	월납	영어 73	10,000	
	조형래	월납	영어 73	10,000	
	권문한	월납	영어 74	5,000	
	이재희	월납	영어 74	5,000	
	조광순	월납	영어 74	5,000	
	김인숙	월납	영어 75	10,000	
	김진형	월납	영어 75	5,000	
	박준언	월납	영어 77	10,000	
	심재철	월납	영어 77	5,000	
	안현기	월납	영어 80	5,000	
	윤승남	월납	영어 90	5,000	
	소영순	월납	영어 94	10,000	
	윤리 (3명)	박병기	일시납	윤리 81	300,000
		장희성	월납	윤리 82	5,000
윤영돈		월납	윤리 91	5,000	
지리 (13명)	남소희	월납	지리 08	5,000	
	박성호	월납	지리 55	5,000	
	김종상	월납	지리 55	10,000	
	이기석	월납	지리 59	10,000	
	김조영	월납	지리 60	10,000	
	박정일	월납	지리 60	10,000	
	최석진	일시납	지리 63	60,000	
	오정림	월납	지리 67	5,000	
	최안기	월납	지리 70	5,000	
	정진대	월납	지리 71	5,000	
	노희방	월납	지리 73	5,000	
	이상용	월납	지리 73	5,000	
	김남형	월납	지리 80	5,000	
최승언	일시납	명예교수	10,000		
홍순관	월납	지학 59	10,000		
김수웅	월납	지학 60	5,000		
안희수	월납	지학 61	30,000		
이규석	월납	지학 66	5,000		
권치순	월납	지학 68	5,000		

학과	성명	납부	학번	신청금액	
지구 과학 (15명)	신동진	월납	지학 74	5,000	
	김찬중	월납	지학 76	20,000	
	손병주	월납	지학 76	5,000	
	황원기	월납	지학 78	5,000	
	홍원기	월납	지학 79	5,000	
	박영신	월납	지학 87	5,000	
	변경자	월납	지학 87	5,000	
	정재훈	월납	지학 '01	5,000	
	김민석	월납	지학 '02	5,000	
	최명중	월납	체육 52	5,000	
	마석렬	일시납	체육 54	10,000	
	이춘원	월납	체육 57	5,000	
	김상수	월납	체육 57	5,000	
	사종식	월납	체육 60	5,000	
	임변장	월납	체육 60	10,000	
체육 (19명)	박영민	월납	체육 62	30,000	
	이진수	월납	체육 63	5,000	
	최기숙	월납	체육 65	5,000	
	정찬모	월납	체육 66	10,000	
	정응근	월납	체육 67	10,000	
	유영채	월납	체육 70	5,000	
	성기훈	월납	체육 71	5,000	
	김현수	월납	체육 72	5,000	
	전태원	월납	체육 72	10,000	
	신인식	월납	체육 73	5,000	
	이선희	일시납	체육 76	1,000,000	
	채현구	월납	체육 78	5,000	
	곽대회	월납	체육 96	5,000	
	화학 (21명)	김재영	월납	화학 54	5,000
		김동길	월납	화학 57	500,000
		김장길	일시납	화학 57	70,000
		김우석	일시납	화학 57	5,000,000
		조정휘	월납	화학 60	10,000
		탁인자	월납	화학 63	10,000
서정선		일시납	화학 64	1,000,000	
최상규		월납	화학 65	5,000	
신일윤		월납	화학 66	5,000	
이영만		월납	화학 66	5,000	
신정숙		월납	화학 67	10,000	
장경순		월납	화학 69	5,000	
최병순		월납	화학 69	20,000	
남병욱		월납	화학 72	5,000	
김득호		월납	화학 77	5,000	
이승희		일시납	화학 78	300,000	
심중섭		월납	화학 79	5,000	
이미혜		월납	화학 79	10,000	
임규형		월납	화학 79	5,000	
김용미		월납	화학 80	5,000	
임승택		월납	화학 82	10,000	
가정 (11명)	홍성숙	월납	가정 50	5,000	
	유승옥	월납	가정 56	5,000	
	이영주	월납	가정 56	5,000	
	이희주	일시납	가정 56	300,000	
	이형자	월납	가정 56	5,000	
	박명희	월납	가정 56	5,000	
	정해자	월납	가정 61	5,000	
	우경자	월납	가정 61	10,000	
	안정균	월납	가정 61	5,000	
	이기춘	일시납	가정 61	1,000,000	
	김영희	월납	가정 68	50,000	
합 계				315명	

# 정도교육클럽 5000

- ◆ **비전**  
서울대학교 사범대라는 이름에 걸맞은 동창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 ◆ **목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동문 누구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2022년 이내에 동창회의 재정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모교, 후배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금 왜 정도교육인가**  
교육이 바로 서야 바른 사람을 기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정도교육의 대의입니다. 서울사대는 정도교육의 중심에 서왔으며, 서 있고, 앞으로 서야 할 사람스러운 모교입니다. 동문 각자가 모교의 분신으로서 이 고상한 사명, 즉 정도교육의 대의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 **'정도교육클럽 5000'의 5000의 뜻**  
매월 5000원(기본)을 동창회에 자동 이체 하는 동문 5000명을 확보하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 **모금한 재원은 어디에 쓸 것인가**  
첫째, 매년 1억여 원은 모교를 지원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 주는 장학금,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모교와 동창회의 공동 세미나, 입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동창회 설명회 등에 쓰입니다.  
둘째, 학과 동문회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16개 학과 동문회를 지원해서 동창회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동창회 행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때 참가비를 받지 않음으로써 동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청관대상 상금도 5백만원 수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 어떻게 추진하는가

첫째, 추진위원회(위원장 변주선 전 동창회장)를 구성하여 동창회장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동창회의 주력 영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학과별 동문회장, 동아리회장, 동창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고 동창회의 모든 조직과 인력의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 ◆ 참가방법

① 매달 일정 금액을 동창회 지정 입금계좌에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은 기본이 월 5000원이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그 이하도 가능하며 월 1만원, 5만원, 10만원, 그 이상 등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뒷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서울사대 전용폰(010-9636-8116)으로 보내주시거나 작성한 신청서를 팩스(02-720-811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② 매월 자동이체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동문은 일시금으로 동창회 후원 계좌번호(우리은행 1005-903-676866)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③ 나중에 기부하겠다고 미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정의 약정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서울사대 전용폰(010-9636-8116), 팩스(02-720-8117)등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④ 서울사대 동창회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903-676866)에 직접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⑤ 핸드폰 또는 인터넷에서 직접 접속해서 되고, URL을 동창회에서 전송받아 핸드폰으로 신청하시거나 동창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URL : <http://자동이체.kr/ars?userid=snueaa001>)

## ◆ 언제까지 추진하나

'정도교육클럽 5000'의 목표는 2022년까지 자동이체 동문 5000명을 모으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계속되기에 동창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호소합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서울사대 출신이라는 후광을 입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울사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규정할 것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교육이, 모교가, 후배가 좀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동창회의 존재가치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신청됩니다.

<http://자동이체.kr/ars?userid=snueaa001>

정도교육클럽 5000 후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903-676866  
예금주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동창회

## ‘정도교육클럽 5000’ 후원 신청서

### 1. 후원기관 정보

후원기관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주 소	우)03740	성별구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 락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피어리스아파트)	입학년도	
	02-720-8116/8120	휴 대 폰	
	010-9636-8116	생년월일	

### 2. 후원자 정보

성 명		성별구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학 과 명		입학년도	
휴 대 폰			
생년월일			

### 3. 후원계좌 정보

예 금 주	후원자와 동일		
은 행 명			
계좌번호			
금 액(월)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이 체 일	매월	일	
	미납시 자동 재출금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 수집목적 : 정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결제사명, 결제자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FMS(주), 금융기관, 통신사(SK, KT, LGU+, C헬로비전), 카드사(BC,국민, 외환, 삼성, 신한, 롯데, 하나, SK, 현대 등), 결제대행사(KG 이니시스, KCP), 효성 ITX 등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등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결제사명, 결제자명, 계좌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휴대/유선전화번호
-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프엠에스(주)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자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및 월자동납부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사대는 교육의 본령  
그대는 정도교육의 자랑

# 정도교육클럽 5000

교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설 때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정도교육의  
초석이 됩시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서울사대 동창회 전용핸드폰(010-9636-8116) 또는  
팩스(02-720-8117)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